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5호 [루게 제26099호] 주제 107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운곡지구 종합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운곡지구 종합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오일정동지, 김용수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에서 해당 부문 일꾼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목장의 우량종축산연구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2년 8월 5일 목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량종축산연구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과업집행정형과 최근에 진행된 연구사업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육종사업과 사육관리방법을 과학화하고 현대화수준을 높여 축산에서 선진국가대렬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현재 기르고있는 집집송들의 종자퇴화를 막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구소에서 시험제배하고있는 다수확 먹이작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료용시량수수모전에 들리시여 정모당수확고가 80%이상이라고 하는 이 종자를 빨리 전국에 도입하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산성이 높고 재배가 쉽하며



에 맞게 잘 꾸리고 관리하며 품종특성에 맞게 먹이처방을 잘해 영양관리를 잘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웅대한 축산발전정책을 관철해 나가자면 뒤떨어진 우리 나라의 축산과학기술실태를 사실 그대로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관심을 세우며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진적인 축산과학기술식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축산부문에 과학자, 기술자육성사업을 중시하며 육종연구와 사육관리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과학화,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계별 목표들을 잘 설정하고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종합적인 축산기반인 운곡지구종합목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축산물산과 연구활동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운곡지구종합목장의 일꾼들과 전체 종업원들은 쉼없는 삼투의 욕망과 목표를 헤치시며 목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의 정성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로고에 끌어오르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무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총정의 보고를 드릴 줄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결계적효과성이 뛰어난 먹이작물들이 많이 퍼지면 축산에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먹이작물제배시험에서 해당 품종의 생물학적특성이나 제명하는것이 기본이 아니고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것이 기본인것만큼 최적한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조건에서 제배시험을 하여 평가하고 전국에 퍼뜨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료용뽕나무포전을 찾았시여 다수확먹이작물, 우량품종의 사료용꿀들을 많이 재배하여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알곡사료단위를 낮추는것은 축산에서 가장 관건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연구소의 육종사업에서의 핵심목표는 생산성이 높고 사료단위가 낮으며 고기질과 맛이 좋은 종자들을 전국에 퍼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구소를 더욱 강화하려면 과학자, 연구사대렬을 잘 꾸리고 축산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실태를 료해하고 국가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대책을 세움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량종축산연구소에서 축산을 과학화,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항구적인 목표로 틀어쥐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의 과학축산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성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비육소원종장 1직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있는 우량종자들의 퇴화를 막고 원종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사업을 짜고들며 중체물이 낫고 고기맛과 우유의 질이 높지 못한 소품종들을 우수한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소사육에서는 소우리환경을 수의방역학적요구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오일정동지, 김용수동지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도와 사업소의 책임인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을 나라의 귀중한 자원으로 보호하며 증식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 것만큼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에서도 쓰가리물 비롯한 많은 새끼물고기를 대량생산하여 연풍호에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쓰가리물 호수에 번식시키는 데서 기본은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질이 급하고 살아 움직이는 먹이만을 먹는 쓰가리의 특성에 맞게 초어와 톱어몰이 비롯한 번식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는 물고기들을 함께 기르면서 먹이사슬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며 배합사료로 쓰가

리물 대량순지하는 기술개발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개천시 서남동지역에 위치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는 부지면적이 1만여㎡이고 연건축면적은 1,260여㎡로서 사무청사와 후생건물, 알뜰우기실, 야외양어못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한해에 새끼쓰가리 수만마리와 먹이용물고기 수십만마리를 생산할수 있는 쓰가리용어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연풍호에 쓰가리물 대대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잘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개천시안의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은 돌격대를 뭏고 자재와 설비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건설을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고 굽어죽들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두차례에 걸쳐 종자쓰가리를 보내주시였으며 사업소에서는 얼마전 준공식을 하면서 그 종자쓰가리에서 알을 받아 깨운 수만마리의 새끼쓰가리와 먹이사슬을 이루는데 필요한 다른 종류의 새끼물고기 수십만마리를 연풍호에 방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건설을 도자재의 힘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연풍호의 자연풍치와

이율리게 아담하게 잘 건설하였다고 치하시면서 쓰가리사식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연풍호에서 쓰가리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졌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알뜰우기실과 야외양어못을 비롯한 쓰가리순지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쓰가리양어를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전당적, 전국가격, 전인민적으로 물고기자

리물 대량순지하는 기술개발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끼쓰가리사육은 쓰가리양어에서 가장 관건적인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갓난고기를 총싹히 자라워야 생장이 촉진된다고 하시면서 알 낳기와 알받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수조랑크들에 적정사육밀도와 적정환경을 보장해주어 새끼쓰가리의 사육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운곡지구 종합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 에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끼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의 수질관리를 잘하고 오물과 오수를 제때에 배출하고 잘 청소 해주며 물과 산소, 물안개장치, 산소공급 장치, 자동온도조절장치들을 비롯한 필요한 설비들을 더 설치하여 새끼물고기수조 랑크와 양어못관리를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쓰가

리는 수질조건에 예민하며 돌잠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살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양어못 물에 쓰가리의 서식환경을 인공적으로 잘 조성해주도록 하며 먹이용물고기생 산호동과 못들을 더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방류어업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완

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

는 수질조건에 예민하며 돌잠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살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양어못 물에 쓰가리의 서식환경을 인공적으로 잘 조성해주도록 하며 먹이용물고기생 산호동과 못들을 더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방류어업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완

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

는 수질조건에 예민하며 돌잠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살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양어못 물에 쓰가리의 서식환경을 인공적으로 잘 조성해주도록 하며 먹이용물고기생 산호동과 못들을 더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방류어업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완

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

민심을 받아안은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로 건설된 자기들의 일터에 친히 찾아오시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신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의 수산자원보호정책을 높이 받들고 수산자원을 증식시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들에게 맛있는 물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줄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 하

각하  
나는 반제국주의에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경시스러운 사변인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이 되는 2018년 7월 27일에 즈음하여 베네수엘라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형제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인민적인 경축의 날인 이날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를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이 과업을 통하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발전과 복리, 번영을 추동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공동의 위대한 목표인 민족들사이의 평화와 화합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자주권과 자결권을 수호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없는 다극세계건설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우리들의 의지를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조국해방전쟁영웅들과 용감하고 끈연한 귀국인민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각하에 나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2018년 7월 27일 까라카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 에피소드준비위원회가 1일 컷도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에피소드분회위원회의 위원장 김문 부부라노 보르제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수도와 지방들에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 나이지리아전국준비위원회가 8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나이지리아 인민민주당 선유위원회의 위원인 나이지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단 부가, 부위원장으로 전국의 하위 의장 아군와 아나에크웨가, 서기장으로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라한 뎀뎀 무함마드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8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공화국의 창건과 강회발전에 앞선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그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 리비아준비위원회가 6일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리비아조선친선협회의 위원장 아흐마드 무함마드 알 케메이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도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349호 주제107(2018)년 8월 10일

### 고암-담춘철길건설에서 공로있는 대상들에게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김정일상,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 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동해지구 석전만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고암-담춘철길의 완공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력정성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적마강한 힘의 일대 과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암-담춘철길을 건설할데 대한 전무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건설자들에게 무한한 힘과 배움을 안겨주시였다.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신념을 안고 산악간이 펼쳐나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정성의

기적높이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려 고암-담춘철길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므로써 우리 나라 철길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히 주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고암-담춘철길건설에서 공로있는 건설자, 과학자, 기술자, 지원자, 일군들에게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의 낮) 및 국가훈장 제1급, 김정일상,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김일성훈장 1명 합기석	김정일상 1명 김광수	공훈선임칭호 2명 공훈자문자문시칭호 1명
김정일훈장 2명 문정용 최진룡	김일성청년영예상 4명 김정일청년영예상 5명	국가훈장 제1급 31명 로력훈장 41명
로력영웅칭호 6명 장준성 김학철 김용일 최상철 김순곤 전향남	공훈과학자칭호 2명 공훈세계가칭호 2명 공훈건설자칭호 1명	국가훈장 제2급 482명 국가훈장 제3급 699명 군공메달 2명 공로메달 1 083명
		계 2 365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 조선해방의 은인, 민족의 대양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국해방 73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위인장중국계측원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하였다.

해방으로 조선민족은 새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조선은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게 되었다.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안아오신 김일성주석을 조선인민은 민족의 대양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의 해방은 식민지민족해방 투쟁의 귀중한 본보기로 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호모를 받으시였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으로 광속히 파급되었다. 조선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중앙통신】**







서사시

인재와와강국

류명호

강국이  
부르짖는 기록이라면  
인재는  
그 기록을 떠났든 부러지면가

강국이  
질주하는 려차라면  
인재는  
그 앞장에서 용쓰는 견인기면가

오, 강국!  
이는 무진막강한 지적잠재력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나라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

들이설수도 애통수도 없는  
원단들과의 행군길

그래서였던가  
미더운 우리 과학자들  
공장이 있고 농촌이 있는  
조국땅 그 어디서나  
혁신의 동음이 되고  
가적의 노래가 되고  
붉은기의 켈릭임이 된것은

그들이 떠난 이 《고향집》에서  
해설처럼 방방곡곡 퍼져간  
보배로운 우리의 것 그 얼마인가  
끊임없이 이끄시는 현지도급  
가시는 곳,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그이를 반겨왔던  
우리 기술, 우리 실비, 우리 제  
품들...

강성민영의 활로를 열어가리라

오늘 우리 조국은  
그 어디 가나 인재들을 부르거나  
협동분야에 뺄산음!  
발전기의 라인에 번개물!  
철차의 질풍을 우회물!  
세상에 제일 강력한 총대를!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차라고  
전철기는 당에서 틀어쥐고있으니  
독룡노도치며 내달리라고  
고무력려해주시는 원수님  
그이를 삼가 우리의  
과학현의 수상나무들도  
한껏 키를 솟구며 설렘었거니

무료교육, 의무교육을 넘어서 실시  
하시면  
우리 수명년 그 모습은 아닌가

아, 그 모습!  
우리 조국이 가장 힘겨웠던 그때  
눈보라치는 전선길에서도  
학교들과 대학들을 찾으면서  
몹소 교수합참도 하시던  
우리 장군님 그 모습은 아닌가

원단교육설비들을  
그른히 갖춘 다기능교실들을  
다 돌아보시며  
우리 원수님  
그리도 아끼시는 시간을  
그리도 아낌없이 바치셨었거니

부모들보다 더 사랑하시는분  
우리 아이들을  
다 인재로 키우시려고  
그리도 마음쓰시는분  
우리 원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인민의 다합없는 감사물!

어린시절부터  
지성의 자양분을 한껏 섭취하며  
조국의 부름으로  
인재의 푸른 숲으로 자라는  
이 나라 아이들을 그려보시는가

두손을 허리에 얹고  
편하게 웃으시는 그이  
눈부시다 그 미소  
태양의 미소

두뇌전의 시대에  
특심으로는 남을 따라설수 없거나

지금도 어제만큼 눈앞에 어려와라  
나라의 국력강화에 이바지한 인재들  
그들을 뜨겁게 포용하시며  
몹소 자신의 등에 업어주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모습이

꿈같이 원수님의 등에 업힌  
심장이 터질것 같은 그 격정에  
파학자는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원수님은  
조선의 인재들을 세상이 다 보  
라고  
오래도록 그냥그냥 지켜이 업어주  
시고...

그 누가 억만금을 손에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 내세  
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을 팔지 않으  
리라  
얼뭉치 다시 떼어낸다 해도  
조선로동당의 기발아래서만 과학  
연구를 하리라  
오직 우리 당의 붉은기발아래  
서만!

붉은 비록 이 땅에 있어도  
머리는 남의 땅을 기웃거리다면  
그런 얼뭉치 과학자는  
두뇌는 있어도  
눈이 없는 허울  
생은 살아도  
살은 죽은것이니

70년전  
남들이 원자탄을 만들며  
강국의 힘을 떠들던 그때  
민타에서 첫걸음 댄 조선이  
70년후 오늘날에는  
사회주의강국의 위대한 힘을  
우주먼리에 내어떨치거니

조국이여  
그대 억척 힘의  
그 리진은 무엇이더냐  
그대 무한대 국력의  
그 생명수는 무엇이더냐

그들이 떠난 이 《고향집》에서  
해설처럼 방방곡곡 퍼져간  
보배로운 우리의 것 그 얼마인가  
끊임없이 이끄시는 현지도급  
가시는 곳,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그이를 반겨왔던  
우리 기술, 우리 실비, 우리 제  
품들...

그때마다 마음속에 꼭 꺼안아보  
시던  
사랑하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  
자들...

자강력계열주의기치높이  
세계를 향하여 내달리는  
우리의 인재들이 장하시어  
거두어둬 치하하시는 그이  
- 우리 과학자들의 명석한 두뇌가  
있는 한  
우리는 다 할수 있소 무엇이더냐!

아, 우리 원수님  
새해의 첫 현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그날은  
우리 과학자들이  
자력자강고향집의 만아들  
시대의 척후병임을  
심장에 새긴 날

그날은  
조선의 국력이  
방크와 포와 비행기가 아니라  
바로 맹장이 키운 인재들임을  
세계가 다스금 똑똑히 깨달은 날

종이와 연필을 쓰지 않는  
이 《로동교실》은 착상이 좋다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결합시  
키는  
《어머니교실》을 보시고는  
교육내용이 아주 좋다고  
원수님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  
시곤

기말하다  
어린이들에게  
한술한술 밤을 먹이듯이  
지식을 가르치는 그 보리가  
홍미진진하다  
하루를 통하여, 연, 락을 알게 하는  
그 교수방법이, 그 현대교육기술이

국가과학원에 가서어서는  
오늘의 우리 인재들  
세계를 앞서나가는 조선의 힘  
우리 막강한 국력을 더 높이 펼치  
라고  
과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  
시고

평양교원대학에 오시어서는  
조선의 우리 인재들  
그들이 주인된 강국의 미래를 보  
시며  
강성조선의 막강한 국력위에는  
바로 교육이 있을을  
교육자들의 가슴속에 새겨주시는  
그이

아, 우리 원수님  
얼마나 인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날의 화폭은  
우리 인민의 실정을 울리고  
전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거니

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용력을  
검증!  
력사의 오늘에 서니  
그 말씀  
그 음성  
다시금 메아리로 울려오누나

수명년과 장군님을 믿고  
진짜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럽었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  
그 시대가 지나간 려사속의 순간  
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  
하여  
헌신분투할것을 엄숙히 맹약하  
시던...

대국심이 증발해버린  
그런 과학은 우리의 인연이 없어!  
인재는 이 세상 여기저기  
아무데나 삶의 보장을 필수 있  
다는  
그런 인생관에 주는 우리의 대  
답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  
- 과학엔 국정이 없어도  
우리엔엔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키워준 꿈을 알고  
삶의 태를 묻는 조국을 위해  
백분 규고 심장내대는 애국과학  
자들  
당과 수명에 대한 총신성을  
세일생명으로 지닌 용용한 지식인  
대군

과학을 알기 전에  
당과 수명을 먼저 알고  
과학자가 되기 전에  
애국자, 무사가 되라!  
이는 우리 공화국의 70성상과 더  
불어  
조선의 지식인들이 넘겨주고 넘겨  
받는  
삶의 비품!  
인재철학!

1

멀리서도  
지성의 무게가 느껴지는  
과학도시  
기초는 수상나무들이  
명예위대치처럼  
차렷하고 서있는 정문을 지나  
우리 원수님 들어서시어라  
국가과학원에

공지높이 하시는 그 말씀  
일글을 가슴가슴에  
불꽃처럼 울려드는데  
우리 원수님 눈가에  
일렁이는 그리움의 물결이어

해방후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시며  
반년인민축사에 처음으로  
인민의 첫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워주시던  
우리 수명년을 생각하시는가

그날 국가과학원에서  
우리 원수님  
어기에 진지된 과학연구성과들을  
온 나라 일꾼들에게 다 보여 주  
라고  
그러면 신심이 생길거라 하시며  
휴대용 약수를 남기셨어라  
원장에게 4월에 다시 만나자고!

인재들이 바다를 이룬  
우리 조국의 배일을 걸으시는듯  
홍그리우신 마음으로  
평양교원대학의 특기기술들을  
진국에 다 도입하라 이르시며  
《가상소학교》 교실에도 들어서시  
어라

순간  
화면에 나타나는 가상아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 동무들, 지금 어느분에서 오셨습  
니까?  
학창의 풀음이  
아주한듯 합창하는 아이들  
- 아버지원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이는 그날  
헤어지는 아쉬움에  
눈물에 젖어있는 교직원, 학생들  
에게  
오래도록 손져어주시어라  
그리고 떠나시며 말씀하셨어라  
학창에게 4월에 다시 만나자고!

만남이면 다 헤치며  
력사의 풍풍속에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금상송시  
키신 그이  
경제강국건설의 직선주도로  
조선의 날과 밤들을 울려세우셨  
거니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경제강국을?  
그 들음에 대한 명쾌한 대답으로  
우리 땅이 높이 든 전략적요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신심은 넘치고  
용기는 때때마다  
진진과학기술인재회의 열풍속에  
과학기술을 가사치릴 어기는  
나라  
과학교육이라는 말이  
시대의 횡단에서 울리는 나라  
이제 머지않아 우리 조국은  
경제강국의 문턱을 열게 되리라

2

1월의 강추위  
서러한 눈보라에  
강산은 하얗게 얼어붙었어도  
원수님을 모신  
과학전시관은  
봄날같은 웃음꽃이 만발해!

- 경애하는 원수님!  
여기 진시물들은  
원수님께서 우리 과학원에 오셨던  
4년전 그날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연구한 주요과학성과들  
입니다

그처럼 어렵던 교년의 행군시기  
공장은 시도  
과학은 시련 안된다 하시며  
과학기술인재들에게  
자신의 정열에말이라도  
기꺼이 받아주셨다시던  
장군님의 그 음성을 되새기시는가

아, 한쌍생  
인재를 제일극도로 여기시던  
우리 수명년들처럼  
인재가 있어야 강국이 있다는  
위대한 지론을 안으신 우리  
원수님  
그이의 로고와 원신을 떠나  
생각할수 있오라  
오늘의 경이적인 과학연구성과들을

이 세상 무모지고  
누가 자식이 될지 모르지 않  
오라  
매일 배우지 않으면  
매일 뒤떨어지는 시대에  
자식들이 공부 잘해 인재가 되  
는것  
이는 무모들의 제일 큰 소원

아, 어머니 그 마음을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었던 그걸음  
으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도  
눈보라날피던 1월

유치원시기에  
어린이들이 로보트도 조립하고  
소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간단한 로보트를 착상, 설계할수  
있는  
연구를 한다는 보고에

기특한 가상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시며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현대교육기술을 많이 개척했다고  
거두어둬 치하하시는 그이  
학창에게 물으시어라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하는가고

아, 4월!  
4월의 그맘도  
우리 원수님  
취임없이 일하고계셨어라  
그맘을 또 하루 새납치릴

김무택에 무슨지 발린  
교교학은 못지않은  
그이께서 이만 다 보셔야 할  
나라일  
세상일

오늘도  
전선길만리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자녀께나 한아름  
원수님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기에  
우리 원수님의 의도와 구상은  
곧 우리의 연구목표!  
그이께서 바라시는 높이는  
곧 우리의 연구목표!

조국이여 인민이어  
현대관 《홍길동》으로 불러우는  
머리한 과학자의 가슴에도  
불굴의 자강력으로  
과학의 횡단을 돌파해가는  
우리 인재대군의 중추를 이룬  
우리 원수님  
과학교육의 토대를 하나하나  
품뭉어 마련하며오시지 않았던가

원장의 자랑스러운 보고에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  
보신다 과학연구성과자료들을  
하나하나 주의깊이  
때로는 진지된 휴대용플루머를  
능란히 다루시며 그 실비도 따져  
보시고

유연자강학적방법으로  
새로 육종한 벼종자들을 가리키시며  
- 이런 벼종자면 막막을 쓰지  
않고  
평상모를 기를수 있겠소  
새로 육종한 사망감제들을 보시고는  
- 이거면 사망문제를 풀수 있겠소

가슴뜨거워라  
무엇이든지 다 세기하라고  
내가 부지런히 뛰었다 하시며  
무더운 여름철  
위생과학자추격지구 삼림점진실장  
그 한한 계단을 오르내리시던  
원수님의 땀물은 그 말자극 말  
자극...

아, 조국과 인민을 위해  
건설장의 가파로운 총계길  
비물이 질박하는 포진길...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으면가  
비판세한 하늘길과 파도높은 바다길  
화선에 나서시던 사생결단의 길...  
나라마다  
병도자는 있어도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과 원신의 길  
그 길에서 혁명하는 보람과  
생의 희열을 느끼시는분  
그런 병도자는 이 세상에 없거니

하나  
희대한 꽃다발이나  
얼룩의 민세보다  
후대교육사업  
인재육성에 진심을 다 바치는  
교원들을 만나시건이 더 기쁘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수고한다고 먼저 인사를 하시는  
그이

눈을 뜨고도  
그날 끝난 갈아 서있는 너락장  
에서 앉으라 하시며  
그이께서는 다정히 물으신다  
대학의 연해서에 대하여  
학원건교육과  
소학교교육에 대하여

저분입니다!  
우리의 세부는 황금이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들이  
라고  
그들을 위해서 아까울것이 없다  
시며  
은갖 특전과 특혜를 다 안겨주시  
는분

저분입니다!  
연공과학자휴양소는  
수명년과 장군님께서  
이미전에 구상하셨다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세계제일의 금방석휴양소를 안겨  
주시분

우리르노라  
인민축사에 특기할 테사변들을  
편이어 창조하시어  
현이여 창조하시어  
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펼치신  
그이  
자신의 천만도고는 다 끌어두시고  
시대와 려살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시며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거니

아, 우리 원수님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 혁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  
시었거니

불꽃은 당중앙창가에서  
원수님은 그려보시며  
4월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던  
국가과학원 원장도  
평양교원대학 학장도  
은 나라 지식인들모두를  
사망의 한몸에 안아보시어라

아, 4월의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아, 우리 원수님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 혁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  
시었거니

자녀께나 한아름  
원수님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기에  
우리 원수님의 의도와 구상은  
곧 우리의 연구목표!  
그이께서 바라시는 높이는  
곧 우리의 연구목표!

조국이여 인민이어  
현대관 《홍길동》으로 불러우는  
머리한 과학자의 가슴에도  
불굴의 자강력으로  
과학의 횡단을 돌파해가는  
우리 인재대군의 중추를 이룬  
우리 원수님  
과학교육의 토대를 하나하나  
품뭉어 마련하며오시지 않았던가

소금농축용이온교환막  
그 제조장정을 다 묘해하시고는  
이렇게 하면  
소금생산에서 혁명이 일어날거  
라고  
어느 한 나라의 독점물인  
인공수정제 가공설비를 자체로 만  
든 이가  
사적부터 끝까지 다 받으시고는  
우리 인재들의 머리가 정말 비상  
하다고...

가슴뜨거워라  
무엇이든지 다 세기하라고  
내가 부지런히 뛰었다 하시며  
무더운 여름철  
위생과학자추격지구 삼림점진실장  
그 한한 계단을 오르내리시던  
원수님의 땀물은 그 말자극 말  
자극...

아, 조국과 인민을 위해  
건설장의 가파로운 총계길  
비물이 질박하는 포진길...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으면가  
비판세한 하늘길과 파도높은 바다길  
화선에 나서시던 사생결단의 길...  
나라마다  
병도자는 있어도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과 원신의 길  
그 길에서 혁명하는 보람과  
생의 희열을 느끼시는분  
그런 병도자는 이 세상에 없거니

저분입니다!  
우리의 세부는 황금이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들이  
라고  
그들을 위해서 아까울것이 없다  
시며  
은갖 특전과 특혜를 다 안겨주시  
는분

저분입니다!  
연공과학자휴양소는  
수명년과 장군님께서  
이미전에 구상하셨다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세계제일의 금방석휴양소를 안겨  
주시분

우리르노라  
인민축사에 특기할 테사변들을  
편이어 창조하시어  
현이여 창조하시어  
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펼치신  
그이  
자신의 천만도고는 다 끌어두시고  
시대와 려살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시며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거니

유치원시기에  
어린이들이 로보트도 조립하고  
소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간단한 로보트를 착상, 설계할수  
있는  
연구를 한다는 보고에

기특한 가상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시며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현대교육기술을 많이 개척했다고  
거두어둬 치하하시는 그이  
학창에게 물으시어라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하는가고

아, 우리 원수님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 혁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  
시었거니

아, 4월!  
4월의 그맘도  
우리 원수님  
취임없이 일하고계셨어라  
그맘을 또 하루 새납치릴

김무택에 무슨지 발린  
교교학은 못지않은  
그이께서 이만 다 보셔야 할  
나라일  
세상일

오늘도  
전선길만리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아, 4월의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아, 우리 원수님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 혁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  
시었거니

자녀께나 한아름  
원수님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기에  
우리 원수님의 의도와 구상은  
곧 우리의 연구목표!  
그이께서 바라시는 높이는  
곧 우리의 연구목표!

조국이여 인민이어  
현대관 《홍길동》으로 불러우는  
머리한 과학자의 가슴에도  
불굴의 자강력으로  
과학의 횡단을 돌파해가는  
우리 인재대군의 중추를 이룬  
우리 원수님  
과학교육의 토대를 하나하나  
품뭉어 마련하며오시지 않았던가

겉을겉을  
보시는것이다 기쁨이다  
한걸음 옮기시면  
금속공업에 없어서는 안될  
금덩이같은 원료를 찾아내어  
짜야만 만간길  
또 한걸음앞에는  
우리 기술로 연구제작한  
원단기능성종이제품들...

- 정말 굉장하구먼!  
우리 과학자들  
우리 인재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구먼  
여기 과학전시관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  
집이요!

가슴뜨거워라  
무엇이든지 다 세기하라고  
내가 부지런히 뛰었다 하시며  
무더운 여름철  
위생과학자추격지구 삼림점진실장  
그 한한 계단을 오르내리시던  
원수님의 땀물은 그 말자극 말  
자극...

아, 조국과 인민을 위해  
건설장의 가파로운 총계길  
비물이 질박하는 포진길...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으면가  
비판세한 하늘길과 파도높은 바다길  
화선에 나서시던 사생결단의 길...  
나라마다  
병도자는 있어도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과 원신의 길  
그 길에서 혁명하는 보람과  
생의 희열을 느끼시는분  
그런 병도자는 이 세상에 없거니

저분입니다!  
우리의 세부는 황금이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들이  
라고  
그들을 위해서 아까울것이 없다  
시며  
은갖 특전과 특혜를 다 안겨주시  
는분

저분입니다!  
연공과학자휴양소는  
수명년과 장군님께서  
이미전에 구상하셨다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세계제일의 금방석휴양소를 안겨  
주시분

우리르노라  
인민축사에 특기할 테사변들을  
편이어 창조하시어  
현이여 창조하시어  
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펼치신  
그이  
자신의 천만도고는 다 끌어두시고  
시대와 려살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시며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거니

유치원시기에  
어린이들이 로보트도 조립하고  
소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간단한 로보트를 착상, 설계할수  
있는  
연구를 한다는 보고에

기특한 가상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시며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현대교육기술을 많이 개척했다고  
거두어둬 치하하시는 그이  
학창에게 물으시어라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하는가고

아, 우리 원수님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 혁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  
시었거니

아, 4월!  
4월의 그맘도  
우리 원수님  
취임없이 일하고계셨어라  
그맘을 또 하루 새납치릴

김무택에 무슨지 발린  
교교학은 못지않은  
그이께서 이만 다 보셔야 할  
나라일  
세상일

오늘도  
전선길만리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아, 4월의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아, 우리 원수님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 혁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  
시었거니

자녀께나 한아름  
원수님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기에  
우리 원수님의 의도와 구상은  
곧 우리의 연구목표!  
그이께서 바라시는 높이는  
곧 우리의 연구목표!

조국이여 인민이어  
현대관 《홍길동》으로 불러우는  
머리한 과학자의 가슴에도  
불굴의 자강력으로  
과학의 횡단을 돌파해가는  
우리 인재대군의 중추를 이룬  
우리 원수님  
과학교육의 토대를 하나하나  
품뭉어 마련하며오시지 않았던가

아, 자력자강의 고향집!  
이 말속에  
모든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식으로 창조한 과학자들에  
대한  
확대의 믿음  
확상의 평가가 있거니

제집이 없이는  
살아도 노예가 되고  
제 기술이 아니거는  
만들어도 남의것이 되는 세계

가슴뜨거워라  
무엇이든지 다 세기하라고  
내가 부지런히 뛰었다 하시며  
무더운 여름철  
위생과학자추격지구 삼림점진실장  
그 한한 계단을 오르내리시던  
원수님의 땀물은 그 말자극 말  
자극...

아, 조국과 인민을 위해  
건설장의 가파로운 총계길  
비물이 질박하는 포진길...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으면가  
비판세한 하늘길과 파도높은 바다길  
화선에 나서시던 사생결단의 길...  
나라마다  
병도자는 있어도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과 원신의 길  
그 길에서 혁명하는 보람과  
생의 희열을 느끼시는분  
그런 병도자는 이 세상에 없거니

저분입니다!  
우리의 세부는 황금이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들이  
라고  
그들을 위해서 아까울것이 없다  
시며  
은갖 특전과 특혜를 다 안겨주시  
는분

저분입니다!  
연공과학자휴양소는  
수명년과 장군님께서  
이미전에 구상하셨다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세계제일의 금방석휴양소를 안겨  
주시분

우리르노라  
인민축사에 특기할 테사변들을  
편이어 창조하시어  
현이여 창조하시어  
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펼치신  
그이  
자신의 천만도고는 다 끌어두시고  
시대와 려살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시며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거니

유치원시기에  
어린이들이 로보트도 조립하고  
소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간단한 로보트를 착상, 설계할수  
있는  
연구를 한다는 보고에

기특한 가상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시며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현대교육기술을 많이 개척했다고  
거두어둬 치하하시는 그이  
학창에게 물으시어라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하는가고

아, 우리 원수님의 평가!  
그것은 영웅의 포상  
인생의 더없는 행복  
시대의 축복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세일 훌륭한 인재들로 키우시며  
소년군진이며 학교에 대학이며...  
12년제의무교육이며...  
불같은 사랑을 다 흘려주시고도  
교육자들을 높이는 내세워주시니

아, 4월!  
4월의 그맘도  
우리 원수님  
취임없이 일하고계셨어라  
그맘을 또 하루 새납치릴

김무택에 무슨지 발린  
교교학은 못지않은  
그이께서 이만 다 보셔야 할  
나라일  
세상일

오늘도  
전선길만리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아, 4월의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아, 우리 원수님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 혁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  
시었거니

자녀께나 한아름  
원수님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기에  
우리 원수님의 의도와 구상은  
곧 우리의 연구목표!  
그이께서 바라시는 높이는  
곧 우리의 연구목표!

조국이여 인민이어  
현대관 《홍길동》으로 불러우는  
머리한 과학자의 가슴에도  
불굴의 자강력으로  
과학의 횡단을 돌파해가는  
우리 인재대군의 중추를 이룬  
우리 원수님  
과학교육의 토대를 하나하나  
품뭉어 마련하며오시지 않았던가

과학기술에  
자력자강이 있고  
과학기술에  
혁명의 승려도 있어

이런분들  
누가 따르고 말하지 않오라  
과학자들의 지어로운 어머니  
집세의 여국가  
김정은원수님의 손길따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저분입니다!  
우리의 세부는 황금이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들이  
라고  
그들을 위해서 아까울것이 없다  
시며  
은갖 특전과 특혜를 다 안겨주시  
는분

저분입니다!  
연공과학자휴양소는  
수명년과 장군님께서  
이미전에 구상하셨다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세계제일의 금방석휴양소를 안겨  
주시분

우리르노라  
인민축사에 특기할 테사변들을  
편이어 창조하시어  
현이여 창조하시어  
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펼치신  
그이  
자신의 천만도고는 다 끌어두시고  
시대와 려살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시며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거니

유치원시기에  
어린이들이 로보트도 조립하고  
소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간단한 로보트를 착상, 설계할수  
있는  
연구를 한다는 보고에

기특한 가상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시며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현대교육기술을 많이 개척했다고  
거두어둬 치하하시는 그이  
학창에게 물으시어라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하는가고

아, 우리 원수님의 평가!  
그것은 영웅의 포상  
인생의 더없는 행복  
시대의 축복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세일 훌륭한 인재들로 키우시며  
소년군진이며 학교에 대학이며...  
12년제의무교육이며...  
불같은 사랑을 다 흘려주시고도  
교육자들을 높이는 내세워주시니

아, 4월!  
4월의 그맘도  
우리 원수님  
취임없이 일하고계셨어라  
그맘을 또 하루 새납치릴

김무택에 무슨지 발린  
교교학은 못지않은  
그이께서 이만 다 보셔야 할  
나라일  
세상일

오늘도  
전선길만리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아, 4월의  
원수님도 안다만길에  
황야신 피로 후실세였어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

한강 또 한강...  
본문을 먼저시며  
심원한 사래의 세계를 펼치신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어인  
개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보고서

아, 우리 원수님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 혁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  
시었거니

자녀께나 한아름  
원수님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기에  
우리 원수님의 의도와 구상은  
곧 우리의 연구목표!  
그이께서 바라시는 높이는  
곧 우리의 연구목표!



